

中都日報

우난순 기자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기록하지 않은 아버지의 전쟁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은 1억원이 조금 넘었다. 그 돈은 어머니와 우리 6남매에게 골고루 돌아왔다. 가슴이 빠근하고 목이 메었다. 비로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각자 우리 손에 쥐여진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 돈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아 저축해 놓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연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저축했다.

중간 중간 결혼하는 오빠들 전셋집 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때를 제외하곤 그대로 모아놓았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저축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다 가셨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았다. 어디 육신의 상처만 있을까. 어릴 적 밤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잠을 깨야 했다. 세상 모든 존재의 영혼이 안식에 몸을 누인 깊은 밤에 아버지의 흐느낌은 시작됐다. “아아아아 아아” 아버지의 악몽은 밤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꿈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 무엇에 쫓기는 걸까. 아버지의 공포의 근원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신음하며 숨을 헐떡이면 엄마는 서둘러 아버지를 깨웠다. 그러면 아버지는 악몽에서 깨어나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나도 잠에서 깨어 이불 속으

로 깊숙이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무서웠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다. 그러면 난 엄마 옆에 바짝 붙어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다. 옆에서 자는 언니도 몸을 뒤척였다. 왜 아버지는 밤마다 우는 소리를 내는 걸까.

불구가 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냉대와 조소로 견디기 힘들어 했다. 동네 어른들이 들판에서 일하다 새참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밥 먹고 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가 지나가면 모른 척 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소연한 적도 있다. 아버지는 외톨이었다.

여리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인 아버지의 고통은 깊었다. 몸이 온전치 못한 ‘상이군인’으로서 아버지의 자각지심과 열등감은 때때로 가슴속의 분노가 폭탄처럼 폭발하곤 했다. 별 것도 아닌 걸로 벼락같이 화를 내 우리 가족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숨을 죽였다.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또 갑자기 화를 내지 않을까 무서워서 아버지 곁에 가는 걸 꺼렸다. 예전에 큰 언니가 한 얘기가 기억난다. 만이인 큰 언니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걸핏하면 산에 가서 죽어버리겠다고 했단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전장에서 돌아온 아버지. 아버지에게 삶은 고통 그 자체였으리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옥처럼 느껴졌을 터.



대전현충원에 잠드신 아버지의 묘비. 현충원은 트럼펫으로 진혼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찍어 유가족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때였다. 동네 내 또래의 남자 아이가 나에게 “네 아버지 손이 왜 없냐?”고 물었다. 저만치서 손이 없는 왼팔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아버지를 본 그 아이가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싱글거리며 놀렸다. 난 그 아이에게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했다. 그 애는 도망갈 듯 하다 다시 와서 계속 놀려댔다. 손이 하나 없는 아버지가 나는 익숙했지만 이럴 때 비로소 아버지의 신체적 다름이 눈에 들어왔다.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트라우마는 아버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이어졌다. 대물림이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격한 분노와 좌절감을 시시때때로 쏟아내는 아버지의 감정에 물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



2019년 2월 아버지가 92살 때 저녁을 먹고 활짝 웃으며 한가롭게 얘기하는 모습. 틀니를 뺀 상태라 함축이가 되었다.

하여 결국 아버지의 자식들은 잔뜩 주눅이 든 아이가 돼버렸다. 그런 아버지를 나는 수도 없이 미워하고 증오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애증인지도 모른다. 지적 욕구가 강한 아버지는 늘 신문을 읽고 한문책을 들여다봤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는 동시에 연민하고 혐오했다. 어린 내가 남다른 아버지를 이해하기엔 일렀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다. 막 중학교 입학한 직후였다. 교과서를 다 나눠줬는데 나만 없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수업료를 안 낸다. 그런데 교과서가 학생 수만큼 온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수업료를 낸 학생들에게 우선 교과서를 배정하고 나는 좀 기다리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수업 시간마다 나는 옆자리 친구 책을 함께 봐야 했다. 키가 작은 나는 맨 앞줄에 앉는지라 금방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넌 왜 책이 없니? 책을 안 갖고 왔구나?” 나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에게 사정 얘기를 했다. 수치감으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교과서는 기별이 없었다. 나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결국 어느날 집에 와서 점심을 먹다 울음보를 터트렸다. 오빠가 깜짝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었다. 나만 책이 없는 데 아직까지 책을 안준다고, 언제 줄지 모르겠다며 엉엉 울었다. 서러웠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애를 입은 아버지가 될 잘 못한 거지? 왜 이 세상에선 아버지가 멸시와 동정의 대상일까. 우리 가족은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두고 바라보는 차별의 대상일 뿐이었다.

내가 다니는 중도일보는 내근 기자도 오피니언 칼럼을 쓴다. 2006년 당시 편집부국장의 제안으로 쓰기 시작했다. 내근도 글을 쓰라고?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지시에 다들 당황스러워했다. 생전 써보지도 않은 글을 쓰려니 압박감이 커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쓰다보니 글쓰기에 빠져 들었다. 글쓰기는 고통이자 행복이었다. 가슴 속에 웅어리지고 상처로 끓은 종기를 터트리는

작업이었다. 노란 고름이 가득 찬 종기를 터트리는 순간 쾌감이 몰려왔다. 형언할 수 없는 짜릿함이었다. 십년 묵은 똥을 왕창 쏟아내는 것처럼 시원했다. 덕분에 자신감과 자존감도 살아났다.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악마에게 혼을 팔아 자신의 치부를 기꺼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니 에르노의 ‘칼같은 글쓰기’가 이런 것일까. 가감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은 정신의 성장이었다.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당연했다. 나는 약자로 살아왔으니까. 몸에 밴 경험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이론과 경험은 천지차이다. 인간은 본대로 느낀대로 생각하고 말한다. 글은 그 사람을 말해준다.

난 전쟁이 두렵다. 내가 직접 전쟁을 겪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한 지 충분히 짐작한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의 사진을 보았다. 똑바로 보기 힘들었다. 두 다리가 잘리고 두 팔이 잘린 사람들. 붕대로 맨 뭉툭한 팔과 다리가 아버지의 몸을 보는 것 같았다.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거의 울 듯한 표정.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전쟁은 끝날 기



지면에 나가는 음식칼럼에서 아버지에 대해 썼다.

미가 없다. 두 다리가 없는 아이의 천진한 미소가 더 아프게 다가온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재직 당시 북한을 향해 “난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다. 정녕 전쟁이 두렵지 않은가? 전쟁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떠들다니, 분노가 치밀었다. 만약에 한반도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걸핏하면 ‘선제타격’ 운운했다. 전쟁이란 말은 나라 지도자들이 말장난하는 소제거리가 아니다.

미국이 일으킨 걸프전, 이라크전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흥미를 제공했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최첨단 무기가 밤하늘에 섬광을 번쩍이며 공격하는 장면은 가히 한편의 게임을 보는 것처럼 스틸을 안겼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전쟁은 단순히 오락거리였다. 하지만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생사를 건 전쟁은 공포 그 자체



아버지와 엄마. 2017년 3월 진주에 나들이 가서 찰칵! 아버지는 항상 손이 없는 원뿔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

였을 것이다. 지구촌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의 난징대학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5·18 광주항쟁, 보스니아 내전, 아프리카의 종족간의 분쟁…

나는 칼럼에서 이 악마와도 같은 전쟁에 대해 쓰고 또 썼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만행에 대해 썼다. 선한 전쟁은 없다고 했다. 전쟁은 단지 호전적인 인간의 정치의 한 방편이다. 권력자의 정치놀음에 언제까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돼야 하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도 지금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2019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젊은 날의 분

노와 고통도 노년엔 사그라들었던 것 같다. 다행히 큰 병 없이 말년엔 편안히 지내다가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부상을 입었을까. 어디서 싸우다가 어떻게 부상을 입었을까. 오래전 어머니가 “아버지가 크게 다치고 여드레만에 깨어나셨다고 하더라”란 얘기를 했다. 아버지도 언젠가 당시 상황을 들려줬다. 의사가 손을 잘라야 한다고 해서 제발 자르면 안된다고 울부짖으며 사정했지만 결국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아버지의 전쟁에 대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아버지 생전에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전쟁의 경험을 간간히 얘기할라치면 애써 외면했다. 왜 그랬을까.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수류탄과 총탄 세례를 받은 나의 아버지 아니었던가. 아버지 개인의 역사는 곧 한반도의 역사 아닌가. 뼈아픈 후회와 자책이 앞섰다. 여태까지 썼던 글은 다 허울뿐인 글쓰기처럼 여겨졌다. 만시지탄이다. 아버지와 마주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지난한 인생 역정을 기록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았을까. 🙏